

# ‘무주공산’... 절대강자 없어 6명 후보 불꽃튀는 접전 예고

## 구례군수

이번 구례군수 선거는 서기동 군수가 3선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절대 강자로 여겨질 만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아 후보 간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무주공산’적인 구례군수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6명이 현재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구례군수 선거는 유권자 규모가 2만 3000명에 불과한 탓에 소속 정당보다는 그간 쌓은 인맥과 혈연, 조직력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의 바닥 민심 잡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순호(56)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 왕해전(55) 구례발전포럼 대표, 이창호(55) 전남도의원, 최성현(62) 전 구례부군수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호 전 비서실장은 3선을 역임한 서군수를 보좌하면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과 50대 중반의 젊은 피를 강조하며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례 산동·간전·마산면장 등을 지내며 다진 인맥 역시 강점



김순호 전 비서실장



이창호 도의원



왕해전 대표



최성현 전 부군수



박인환 전 도의원



전경태 전 군수

민주당 김순호·왕해전·이창호·최성현 경선

민평당 박인환, 무소속 전경태 후보 출사표

으로 꼽힌다.

왕해전 구례포럼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균형발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당활동 경험을 쌓았고, 중앙인맥과의 인연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왕 대표 역시 50대 중반의 나이로, 젊음과 참신함을 무기로 구례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바닥 민심을 잡고 있다.

농업인 출신의 이창호 도의원은 구례군

의원·전남도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역임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구례군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민운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밀착해 호흡해왔고 지역 현안에도 밝다는 평가가 있다.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는 전문성이 돋보인다. 전남도 주요 보직을 거치며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군수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대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의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추진력과 인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꾸준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오며 쌓은 인맥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례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다.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전경태 후보는 민선 2·3기 구례군수를 지냈다. 민주당 공공 지지율 속에서 그동안의 균형 운영 경험과 조직력 등을 바탕으로 민심을 공략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 인구 적어 인맥·혈연·조직력이 좌우하기도

‘경선이 본선’ 공식 깨질수도

지리산을 품은 산수유 고장 구례군은 인구 2만7000명이 사는 평화로운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적은 인구가 군수 후보자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을 기세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서기동 현 구례군수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선거 중립’을 선언한 상태여서 뚜렷한 절대강자 없이 6명의 후보자 모두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가 약 4개월여 남은 현재 군수 선거 판세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 4명의 후보자가 1명으로 압축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경우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이번 군수 선거에서는 깨질 공산이 있다는 것이다.

민선 1~6기 구례군수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적게는 7000표, 많게는 1만2000표를 얻은 후보자가 군수 자리를 가져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남의 다른 단체장 선거구와 달리 구례군수 후보자들이 출마 기념회나 정책 발표 및 발표에 인색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후보자 스스로 정책보다는 인맥, 혈연, 조직에 따라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민심을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관찰된다.

무소속 전경태 전 구례군수와 민평당 소속의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의장이 조직력과 인맥을 무기로 유권자들을 공략, 경선을 통해 뽑힌 민주당 후보자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 현역 프리미엄 사라져... 민주당 대 민평당 대결 ‘팽팽’

## 고흥군수

박병중 고흥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고흥군수 선거는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내 후보 경선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구의 황주홍 국회의원이 민주평화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대 민평당 후보와의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민(64)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김학영(66) 전 고흥경찰서장, 장세선(65) 고흥군의회 의원, 송형곤(54) 전남도의회의원 등이 후보 경선을 위해 표발을 누리고 있다.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이사는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탄탄한 조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고흥군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을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은 입법고시, 행



공영민 전 실장



김학영 전 서장



송형곤 도의원



장세선 군의원



송귀근 전 부시장

민주 공영민·김학영·장세선·송형곤 경선

무소속 송귀근 조만간 민평당 입당 밝혀

정고시 합격으로 재무부, 전남도청, 국회 사무처, 청와대, 경찰청 등 다양한 근무 경력이 장점이다.

이번 군수 도전에 세 번째로, 그동안 지역에서 바닥 민심을 잡는데 주력하면서 세 번째 도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 인맥과 경주 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장세선 고흥군의회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제7대 전반기 의장과 3선의 농협조합장, 고흥군 장로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

다. ‘고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최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송형곤 전남도의원은 재선으로 제10대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전 민주당 고흥·보성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전 국회 4급 정책보좌관 등 오랜 정당 활동에서 쌓아온 정치경험과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토박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지기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인해 현재는 무소속인 송귀근(62) 전 광주시 행정

부시장이 민주평화당에 조만간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평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부시장은 이번이 두 번째 군수 도전으로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로 표발을 누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해 1412표 차로 석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송 전 부시장은 고흥 부군수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등 중앙과 지방에서 33년간 근무해온 행정 전문가라는 점이 강점이다. 그는 ‘고흥군을 남해안 제1의 해양관광지로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그동안 꾸준히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사진은 현직·정당·무소속·가나다 순

## 현 군수 조직 누굴 지지할 지 최대 관심

고흥읍·도양읍 세대결도

군향우회 등 영향력 변수

고흥군수 선거는 3선의 박병중 군수 조직이 민주당의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박 군수는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지만 박심(朴心)이 누구에게 실리느냐에 따라 경선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군수의 탄탄한 조직을 승계하기 위한 민주당 후보 간 구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고흥읍과 도양읍(농동)의 세(勢)대결도 관심사다. 그동안 도양읍을 중심으로 남부 표심과 과역·대서를 중심으로 한 북부 표심이 차이를 보였다.

도양읍은 박병중 군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박 군수의 3선 신화를 도왔다. 따라서 도양읍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남부 출신은 공영민 전 기획재정부 국장,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장세선 고흥군의회 등이 다. 공 전 국장은 풍양면, 김 전 서장과 장 의원은 금산면 출신이다.

북부 출신은 과역면이 고흥인 송형곤 전남도의회원과 대서면 출신의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맞대결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는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송귀근 후보가 지난 선거에 이어 두번째 도전함에 따라 인지도와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합당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 옷을 입은 황주홍 현역 국회의원의 조직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정당간 불꽃 튀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흥군향우회 등 외부 영향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TV소리·말소리, 잘 안들리세요?!

- 대한보청기 -

“시중 실구입가보다 무조건 더 저렴하게!!”

고급보청기 12채널!! (무료:청각장애등급자) A/S·배터리 5년 무료

광주·전남지역센터  
1:1 고객 맞춤상담

062)430-8900

순천·여수지역센터

061)741-4880

전북·전주지역센터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